

5/29/22

설교 제목: 거듭남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요한복음 3장 1-21 절

- (요 3: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절관주** 눅 23:13
- (요 3: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 (요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 (요 3: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 (요 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 (요 3: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절관주** 요 5:24
- (요 3: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절관주** 전 11:5
- (요 3: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 (요 3: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 (요 3: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 (요 3: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 (요 3: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절관주** 잠 30:4, 행 2:34, 요 6:38, 요 6:42
-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요 3: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 (요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 (요 3: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 (요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 (요 3: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 (요 3: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본문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어지는 '거듭남'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이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옵니다.

- (요 3:1)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 (요 3: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계층이었습니다.

너무나 형식과 외식에 치우쳐 예수님과 갈등을 빚기도 했지만 그들은 유대교의 여러 분파 중에서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란 유대 최고 의회 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유대 사회에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는 십일조를 또박또박 바쳤고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일 주일에 2 번씩 금식을 했고 기도 생활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따논 당상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 구석에는 웬지 공허감과 진리에 대한 답답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던 중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들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당시 대제사장 제사장들을 비롯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다 없신여기는 나사렛 출신 목수인 예수가 성전에 들어와 성전을 뒤엎는 행동을 함으로써 기존 질서에 저항하는 것도 거슬렸고 또 이적을 베풀어 대중 사이에 인기가 치솟는 것도 질투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을 모르지 않는 니고데모였지만 그런 것들이 그의 잔리를 알고자 하는 열망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결단하고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한 밤 중에 당신을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두 번씩이나 반복하며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묻지도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그가 거듭나지 못했음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알고자 용기를 내 찾아온 그에게 구원을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요 3: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은 니고데모가 여지껏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요 3: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정말 솔직하고 소탈하고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질문에 빵 터집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 지도자여서 막강한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던 그가 이렇게까지 솔직할 수 있다는 것에 오히려 존경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는 거듭난다는 것을 단지 육적인 의미로만 생각했을 뿐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땅으로부터 난 육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영을 가진 영적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라도 모든 인간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해를 돕기 위해 거듭나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요 3: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 3: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물은 죄 씻음을 말합니다.

세례 의식의 물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성령은 인간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자신들의 심령에 적용케 하심으로써 구원 활동을 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는 의와 선을 행치 못했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뜻을 알게 되어 그 뜻을 행하는 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거듭나면 영혼이 변화됩니다.

인간의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신앙 생활을 철저히 했다고 자부하던 니고데모였지만 예수님의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도통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체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거듭나는 것은 내면의 영적인 변화이기 때문에 체험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니고데모가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바람을 비유해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요 3: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 3: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하십니다.

바람은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디로 가는지 볼 수는 없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고 그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도 볼 수는 없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이 회개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변화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고 성령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듭남은 이땅 사람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구원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한 당신의 말씀이 진리임을 강조하십니다.

(요 3: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요 3: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요 3: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요 3: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하나님의 인간 구원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이땅에 내려 오셨음을 밝힙니다.

(요 3: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 3: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 광야 생활을 했을때 있었던 뱀 사건을 언급하시며 장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예시하십니다.

뱀 사건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민 21: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민 21: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민 21: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민 21: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민 21:9) 모세가 뱀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뱀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애굽은 뱀 곧 사탄 마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사탄 마귀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탄 마귀의 지배 하에 있었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불뱀 곧 사탄 마귀를 보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이 지시하신대로 장대 위에 매달은 낫뱀을 쳐다본 자들은 모두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실상 재현됩니다.

예수님은 낫뱀이 장대 위에 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장대 위에 달린 낫뱀을 쳐다보는 이마다 모두 산 것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살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죄사함을 받아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비방을 주신 것입니다.

(요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7)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 3:18)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님은 죽으시기 위해 이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 우리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세상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여기서 세상은 세상 모든 사람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가리킵니다.

인간이 자신의 의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실상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같지만 만세 전에 하나님의 택하심과 이끄심이 없이는 결코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엡 2: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을 받은 증거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이요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 것은 이미 정죄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요 3:19)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 3:20)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요 3:21)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좇는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빛되신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여 빛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거듭남'은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거듭남'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십일조를 한다고, "주여 주여"한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의 피로 죄씻음을 받아야 천국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는지요?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것입니다.

체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거듭난 것을 압니다.

이시간 거듭나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 나길 기도합니다.